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s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주 예수이름 높이어(찬36/새36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최주상 장로 2부/최호경 집사 3부/탁정호 장로 4부/윤희정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순종하는 마음 (작곡 진선미)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5:43-48 All together 다같이
4부/베드로전서 1:1-6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게임 체인저(16) 말로 하는 사랑

4부Rev. Jason Oh 오중석 목사

구원 받은 자는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시선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아 하나님의 은혜로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다시 신학생이 되어

Becoming Seminary Student Again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학교를 졸업한 지가 까마득한데, 다시 학생이 되어 학교에 오니 배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자유'입니다. 교수님들은 양복에 넥타이까지 매고 점잖게 가르치시는데, 학생이 된 저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수업에 들어가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습니다. 목사이다 보니 늘 입을 열어 가르치는 습관이 몸에 배었는데, 입 대신 귀를 열고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같이 배우는 후배들을 보니 모두 내로라는 교회의 담임목사들인데 모두 어찌나 열심히인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달해 주는 점심과 저녁을 먹고 숙소로 들어가면 숙제하고, 아침에는 호텔에서 주는 간단한 아침식사 후 다시 학교로 와서 저녁 식사 전까지 그야말로 '밥만 먹고 수업만 듣는' 모습이 마치 고등학생이 된 것 같습니다. 논문을 열심히 써야 하는 저는, 교회 사역 중에는 설교 준비에 급급해서 논문을 위해 읽어야 할 책들을 읽지 못해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가, 야단 아닌 야단을 맞고 이제야 책들을 찾아 읽으며 논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공부는 30대에 끝내야 하는데, 6학년이 되어 늦깎이 공부를 하려니, 머리에서 쥐가 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3,500에서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수는 훨씬 더 늘었을 것이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미국의 영적인 기류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물론 매년 세워지는 교회들도 많지만, 기존의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고 문 닫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교회가 문 닫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자라난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재미도 없고, 서서히 출석 교인수가 줄어가는 예배 현장을 보면서 무언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마당을 밟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리더십은 강단 리더십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열공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식사하면서 가끔씩 나누는 대화 속에 목사님들의 안타까운 눈물을 봅니다.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아사셀 * 같다고나 할까요. 교회의 그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목회자 혼자서 바둥거리는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저러옵니다. 이런 순수한 목회자들을 돕고자 시작된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은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집중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후배들과 저에게 맡겨진 시간을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1년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두 염소가 나옵니다. 한 염소의 피는 희생되어 그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지고, 다른 한 염소는 백성들의 눈앞에서 광야 무인지경으로 끌려가 버려집니다. 이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영영히 떠나보낸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염소가 아사셀입니다.

It has been so long since I graduated from seminary. It was very nice to come back to school to study again. The best thing about it is freedom. Professors are teaching, wearing suit and tie. As student, no one cares if I enter a classroom wearing blue jeans, t-shirt, and sneakers. Being a pastor, I have become accustomed to teaching. But being able to open my ears to hear and to learn was wonderful. I watched younger colleagues learning alongside of me. They were all senior pastors, and they were very intent on learning. They were so passionate that they didn't stop from morning to night. We ate lunch and dinner together that school provided us. We would go back to our hotel rooms to do homework. We got up early in the morning to a quick hotel breakfast. We return to school and take more classes until dinner time. It felt like we were back in high school again. I had to concentrate on writing a thesis. I was not able to read books for my thesis due to ministry and sermon preparation, and that has made this progress very slow. That is not until now, somewhat being scolded, I am searching for books to read and finding direction for my thesis. Studying should have ended in 30's. In my 60's, I am wracking my brains trying to study.

3,500 to 4,000 churches close their doors each year in the U.S. I saw a report that said that this number increased considerably during the pandemic. It seems true that the spiritual current in U.S. has taken a downturn. Although there are many churches still being planted each year, existing churches are dying and awaiting the day that their doors will close. No one wants to close their church doors, particularly the church that they grew up in. Watching churches struggle, being unenjoyable, and decreasing in attendance, yet, we don't know what to do. People just attend churches habitually. Many pastors came here to study with desperate desire to revive their churches. In particular, since pastoral leadership is pulpit leadership, it's not wrong to say that we need to put effort into delivering the Word 'correctly'. In our conversations during meal times, we saw pastors' tears of frustration. My heart ached listening to stories of struggling alone with no support, like Azazel* sent out into the middle of wilderness. The seminary started this Doctor of Ministry program with hopes of helping these pure hearted pastors with focus on raising up healthy churches. I participate with younger colleagues, and humbly share my time with them in this endeavor.

* On the Day of Atonement, July 10th, two goats are presented as sin sacrifice for the year. One goat will be sacrificed and its blood will be scattered on the Mercy Seat. Other goat is taken and sent out in view of people to a desolate wilderness. It represents that our sins will be sent away forever. This goat is Azazel.

주일설교시리즈



산상 설교 강해- 제16편
게임 체인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말로 하는 사랑

(마 5:43-48)

1.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다가 잘못 알고 있었던 말씀은 없습니까?

2.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침식한 예를 본문과 레위기 19:18을 비교해 보십시오.(43절, 참고/ 레 19:34, 출 23:4-5, 신 22:1, 잠 25:21)

3. 예수님은 '이웃'의 범주에 유대인이 원수로 여기는 '이방인'을 포함시키며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44절)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요?

4.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질문한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 1) _____ (45절)
 - 2) _____ (47절)

5. 말로 하는 사랑의 극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문안도 하게 되고, 남보다 더 하는 신앙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44절, 47-48절)



Father's Day 특집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엔 한국에 같이 여행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의 날을 축하하고, 사랑해요!

Annette Kim(6학년)



주셔서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Ethan Kim(7학년)



아빠는 우리 쌍둥이에게 최고의 친구예요. 아빠는 저희의 숙제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을 참을성 있게 경청해 주세요. 신앙으로 우리 가족을 인도하는 아빠 같은 분이 우리 아빠

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아빠는 시간이 있으나 없으나 늘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늘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생각해 주시는 걸 알아요. 아빠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부 쏟아주세요. 아빠는 바쁜 선생님이지만 우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 우선순위에 놓으세요. 저희는 아빠와 보내는 모든 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아빠는 우리에게 온 세상이예요. 아빠 사랑해요!

이하진, 이하준(6학년)

아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전 아빠랑 같이 학교 생활과 스포츠에 관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함께 게임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퇴근 후 피곤하신데도 우리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시죠. 한 달에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큰 기쁨이에요. 아빠, 나의 아빠이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Micah We(9학년)

아빠,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와 말씀 읽기를 하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태워다 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전 아빠에게 수학을 배우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아빠, 저를 아무런 조



아빠, 제가 힘들어할 때 모든 과정을 저와 함께 인내해 주시고 저조차 제 자신을 믿지 못했을 때도 한결같이 저를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제 편이 되어서 지지해 주고 이해해

교육부-영유아VBS

두근 두근 하나님 저 왔어요~~

아이가 아침7시부터 주황색 VBS티셔츠를 들고 와서 어서 가자고 재촉하며 교회 가기를 너무 즐거워한 한 주였습니다. 찬양팀 선생님들의 울동에 맞춰서 손뼉을 치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아이가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과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쉽게 해주지 못하는 밥풀 놀이 등 준비해주신 손길들에 사랑이 느껴졌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VBS를 통해 아이들 마음에 심겨진 믿음 씨앗이 싹속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유승아 집사



입구부터 뛰어오는 아이들의 발걸음은 청명한 하늘만큼이나 상큼합니다. 올해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지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과 새로 만나는 친구들을 살펴보며 설레는 아이들의 마음이 보이는 듯합니다. 선생님들은 덩달아 함박웃음을 지으며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울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

다는 메시지를 심각하게 듣는 모습은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커다란 집도 짓고 미니폴에서 낚시도 하면서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떤 아이 하나가 선생님의 옷을 당기며 "나의 선생님이 되어 매일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며 매일 기도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사랑이 전해졌던 것이지요. 사랑은 전해지는 것이고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 아이의 조그만 가슴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Tina Chong 전도사

교육부 - BYM 졸업

믿음의 황금줄 잡기

2022년 BYM 졸업 벅킷은 정말 기대 이상으로 특별하고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과 주일에 BYM 고등부에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왔다 가시지만 저희 모임 전과 후에는 목사님과 인턴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은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졸업 벅킷은 특별히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아니라 재학생 후배들이 저희 졸업생들을 위하여 마련해 준 너무나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졸업 벅킷의 순서 하나하나에서 후배 동생들이 저희를 위한 사랑을 가득 담아 준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팀장님과 부모님들의 많은 준비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환상적인 저녁식사까지 이 모든 것은 저희 졸업생들이 결코 잊지 못할 기억에 남을 선물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이 시기에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팬데믹 기간을 지나오면서 제가 BYM 영어 고등부를 졸업하며 느끼는 것은, 참 좋은 베델교회에서 많은 믿음의 본을 보고 배웠으며 세상을 대할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곳 BYM 고등부를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대학에 가서도 교회와 연결되는 삶으로 예배를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2022년 BYM 졸업 벅킷, 정말 귀한 섬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Ashley Jo(12학년)

영어 고등부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를 통해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합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12학년 여학생들과 삶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함께 기도에도 힘쓰며 올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졸업하고 대학을 향해 가는 12학년 학생들에게는, 지금의 이 믿음이 대학에 가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음을 보고는,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

으로 다져진 저희 BYM자매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BYM 고등부는 매주 금요일 모임과 매달 한 번씩 BGC(베델 영어 교회)와 연합하여 금요일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모이는데 힘을 다하여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와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준비해 오던 여름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Watts 교회와 로스 앤젤레스의 이웃을 돌볼 예정이며, 일본 도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학생들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름방학 중인 8월에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게 되는 여름 수양회와 참여하는 저희 학생들이 예배와 선교,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다시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Grace Park(BYM 인턴)

2022년에 졸업하는 선배들은 저희 모두에게 본이 되어주었고, BYM 영어 고등부를 한 가족으로 묶는 데에 힘써 주었으며 후배들에게 정말 존경받을만한 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팬



데믹을 핑계로 저희는 모이는 게 어느새 어색해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이 더욱 편하고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12학년 선배들은 저희 모두를 아름다운 커뮤니티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인 졸업 벅킷은 아니었지만, 순서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들로 단장된 아주 따뜻한 벅킷이었습니다. 저희 후배들의 마음과 사랑, 그리고 부모님들의 정성이 모아져 아름다운 시간을 졸업생들에게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지금 우리 모두는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축복하고 축하받으며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멋진 벅킷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졸업하는 졸업생 한 명 한 명이 앞으로 계속 주님을 신뢰하는 삶,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후배들과 늘 함께해 주었던 선배들의 모습과 예배를 통하여 복음 중심의 신앙을 함께 나누었던 시간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졸업생 모두와 늘 동행해 주시고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Lydia Moon(11학년)

새가족 소개와 환영회

처거름, 처이사 스런님, 스린님

새로 정착할 교회를 찾으며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다가 아이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던 중 지금의 셀목자님 초청으로 베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걱정과는 다르게 교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주차 봉사로 섬겨 주시는 분들과 새가족을 섬겨 주시는 모든 분께 친절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처음 방문이라 긴장했던 마음이 따뜻한 반깁에 사르르 녹았고,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날의 감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을 열렬히 환영해 주신 새가족팀 집사님도 생각이 납니다. 첫 방문부터 베델 교인이 되는 날까지 매일매일 카톡으로 안부를 물어봐 주시며 교회 소식도 업데이트 해주신 덕분에 자연스럽게 베델 교회의 교인으로 스며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 그리고 우리 셀식구에게 감사드립니다.

김나영 성도

2022년 여름 새가족 환영회

할렐루야! 우리 베델교회를 찾아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25일(토) 오후 5시에 유년부 (2~3학년) 예배실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하고자 합니다. 초청장을 받으신 성도님들은 자녀분들과 꼭 함께 참석하셔서 성도 간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새가족 팀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최상의 음식과 천상의 온화한 분위기로 멋지게 장식한 곳에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새가족 여러분들이 베델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예배를 통해 이민 생활의 공허함을 믿음으로 채우시며,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베델의 새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쁨과 설렘으로 모두 만나 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시/장소 : 6월 25일(토) 오후 5시, 유년부 채플
문의: 김병인 장로 (714)904-2686
송덕영 장로 (425)478-3143

선교-캄보디아

초롱한 눈망울에 비춰질 모습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떠나는 캄보디아 선교팀입니다. 캄보디아의 국명은 캄보디아 왕국이며 위치는 인도차이나반도 서남부에 있으며 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접경하고 있습니다. 13년의 내전과 킬링 필드로 대량 학살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으며 아직도 전쟁의 피해를 복구 중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킬링 필드와 내전으로 인해 지식층이 단절되었고, 전쟁과 살육에 대한 사회적 트라우마가 아직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국교는 불교로 95% 이상이며 기독교는 1.5% 정도에 불과한 부패하고 상처가 많은 작은 나라입니다.

베델 선교팀은 주로 아동사역을 할 예정이며 NEW HOPE SCHOOL에서 처음으로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몇 해 동안 수고하며 만드신 축구장이 완성되어서 작은 opening ceremony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엔 2세대들이 동참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것 같아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가난한 동남아의 작은 나라에 예수님의 사랑 나누고 오겠습니다. 무엇을 하거나 나눠 드리기보다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고 오는 선교팀 되길 기도해주시고,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기도와 물질로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선교 기간: 7월 5일(화)-7월 13일(수)
문의: 임동역 장로 (323)356-0521

기도해 주세요

1. 학교에서 도와주시는 분의 남편이 암4기로 병원에서 해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성촌인 고향찌에 그 형제를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2. 3월에 12명으로 시작한 껌의 Koun khmer New Hope School이 두 배로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님의 손길이 풍성히 넘쳐 복음이 널리 전해지길 믿고 기도합니다.
3. 내년엔 New Hope School이 3학년이 사용할 교실이 없어서 옥상에 2층을 올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 로타 전도사가 신학교 마지막 학기를 잘 마쳐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 받길 기도합니다.
5. 교사들과 저희가 성령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며 맡겨주신 아이들과 고향찌의 동네 사람들을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목사/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욱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경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베델 제자훈련 수료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 양성되는 것입니다! 베델교회는 더 많은 성도님이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제자도의 섬김과 헌신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성장하고 깊어지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2022년 베델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반(17명): 강 영, 박소이, 김문숙, 김상현, 김성지, 김영미, 김재호, 김지원, 림학철, 박연나, 장윤정, 장현숙, 오정선, 윤세정, 이주연, 이현동, 한보영

제자반 영어권(4명): Christine Min, Daniel Lee(이형구), Elizabeth Cha(이선화), Jeff Chang(장재혁)

양육반(36명): 강미혜, 구윤모, 권미경, 곽영지, 김경하, 김광식, 김도형, 김소연, 김성희, 김수연, 김애란, 김은영, 김정원, 김진숙, 김제형, 김향자, 김현진, 노완규, 명세화, 민옥진, 박주희, 백승현, 서혜원, 안수연, 이경희, 이승현, 이윤옥, 이형숙, 조광중, 주경아, 주선영, 최재호, 채명주, 한필영, 황연주, Lena Kim,

양육반 영어권(4명): Christian Sur(서덕령), Jiyoung Kim, 김태연, Yunice Lee

BAM 훈련(15명): (1단계) 김문식, 박관수, 박경수, 박세환, 박성화, 박재영, 박 선, 윤미나, 장항령, 진효진, 한정훈, 황사균 (2단계) 김선희, 왕혜원, 최호경

56차 전도폭발훈련(12명): (1단계) 김기옥, 안예진, 안슬기, 황태영 (2단계) 박영재, 이앤마리, 송미선, 최동주 (3단계) 김정순, 이크리스티나 (4단계) 오경희 (5단계) 오은옥

바이블 클럽(56명): 곽영지, 구영순, 김다연, 김명현, 김선우, 김성귀, 김순이, 김선희, 김인순, 김정아, 김지연, 김지영, 김유숙, 김은애, 김은영, 김인흠, 김일혜, 김 진, 김희영, 박경숙, 박성혜, 박선영, 박선희, 박신희, 박영혜, 박은혜, 박지연, 박지은, 백승현, 신수정, 선우명자, 선우원근, 오경희, 오은옥, 우재숙, 유승아, 윤현정, 이경숙, 이경희, 이나미, 이미옥, 이지현, 이준혁, 이유경, 이은영, 이한나, 임지현, 조옥자, 최사라, 최선희, 케빈마, 황미동, 황보현주, 황성희, 홍성아, 황영애



▶ 일시/장소: 6월 19일(주일) 3부 예배 시/본당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6,7월) | 6/26: ①부-한 일 ②부-한 존 ③부-한태성 ④부-이영진
 7/3: ①부-현석남 ②부-홍락기 ③부-홍승평 ④부-이정수
 7/10: ①부-홍원희 ②부-황사균 ③부-황세헌 ④부-전형우

헵시바토요일 새벽 대표기도(6,7월) | 6/25: 박선암 7/2: 박선재 7/9: 박성남 7/16: 박영선

강단꽃(6,7월) | 6/19: 김유민 6/26: 김한요, 박경철, 서혜원 7/3: 김보라 7/10: 김보라, 김성희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이근웅(정형외과), 간호사-채수정 다음주 | 의사-장미순(한의사), 간호사-채수정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예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효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베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4부예배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오중석 목사님...

◆ Happy Father's Day 베델 사진관 오늘(19일) 아버지의 날을 맞아 하여...

◆ 베델제자훈련 수료식 오늘(19일) 3부 예배 시에 1년 또는 6개월 동안 예수...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자녀 포함)을 위한 새가족...

◆ 베델 수요예배 안내 강문구 목사님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법에 대하여"...

◆ 셀모임안내 셀 모임은 6월 말까지 진행하고 방학하게 되오니, 끝까지 말...

◆ 제6차 한 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신학강좌가 "교회를 지키는 신학-도...

◆ 교회학교 VBS가 잘 마쳤습니다 팬데믹 이후 현장에서 맞는 첫 VBS가...

◆ 제9회 유영 장학생 및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

◆ 장학특별헌금 코로나 이후 고통과 혼란의 청년기를 겪어내야 하는 차세...

◆ 교회학교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K-1(3부), 초등부 (2,3부) 교...

◆ 소망부 VBS 교사 및 TA 모집 소망부(장애인) Hope Ministry에서 VBS...

◆ 예살 청2 수양회 예살 청2 수양회가 6월 24일(금)-26일(주일)에 갈릴리...

◆ 큐티인 판매 7-8월 한국어 큐티인과 교회학교 큐티인 6월호 영문판이 실...

◆ 위로해 주세요 -故 박노철 집사님(이혜수 권사의 부친, 이윤성 집사의 장인, 박승원 권사의...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편집장: 유미경 권사 사진: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수 집사, 황수정 집사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SERMON ON THE MOUNT - 16
GAME CHANGER

Love in Words

(Matthew 5:43-48)

1. Are there words that you mistakenly thought were in the Bible, but are not?
2. Let's take God's word that Pharisees used as an example in this passage and compare it to Leviticus 19:18. (v.43, Ref: Lev 19:34, Ex 23:4-5, Det 22:1, Pro 25:21)
3. Jews thought of 'Gentiles' as enemies, but Jesus includes them in the category of 'neighbor' and asks them to do what? (v.44) In your mind, what is the extent of your neighbor?
4. If we were to ask why we have to love our enemies, what would be Jesus' answer?

1) _____ (v.45)

2) _____ (v.47)
5. What is the highest extent of love in words? Let's try that starting today. Then, not only will you share greetings, it will ultimately lead you to a place of faith. (v.44, vv.47-48)

Apply to Life

